

전남 중부권

LG화학 나주공장 증설 반발

주민들 “악취 고통·점착제 인화성 폭발 위험”

LG화학 나주공장이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수성 점착제 공장’의 증설을 추진, 지역민들이 자칫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장 인근지역까지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LG화학 나주공장에 따르면 지난 2006년도에 수성점착제 공장을 신설, 현재 1만7000t가량을 생산하고 있으나 수요가 급증해 추가로 7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만t 규모의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점착제 공장의 경우 인화성이 높아 폭발위험이 있는 등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아크릴레이트’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자칫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 인근지역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49조 2

항 등에 공정위험성평가 등을 거처도 록 돼 있는 등 중대 산업사고 발생업 종인대도 공장 측이 지역민들한테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일방적으로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특히 나주공장의 경우 주거지역내에 공장이 위치해 있어 이 같은 위해 시설들이 들어설 경우 자칫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민 K(53·나주시 토개동)씨는 “인근 주민들이 지금까지도 냄새에 시달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위해 시설들이 증설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1차 점착제 공장도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준공돼 운영돼 왔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나주시의회 김중문 의원은 “조만간 시의회에서 LG공장의 이 같은 문제점을 거론할 계획이다”며

“이제는 더 이상 화학공장을 증설하 기보다는 공해가 없고 고용창출이 보 장되는 제조업을 유치하도록 LG측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LG화학 나주공장의 경우 저기압때만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냄새에 따른 피해를 수시로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난해 완 공한 나주공장 바로 옆 송월택지의 경우는 이 같은 문제점이 대두 돼 분 양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나주공장 관계자는 “LCD 편광판용 점착제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물을 45%가량 혼합하고 있는 만큼 타 화학제품 생산 공장보다 위험성이 낮다”며 “공장부지에 증설 하는 시설인 만큼 소방서 등에 위험 물 제조시설 허가 등을 거치면 된다”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우리는 환상의 복식조”

장진군 칠량면 학동마을 들녘에서 주민이 황소로 밭갈이를 하고 있다. 농업 기계화에 따라 황소 쟁기질은 보기 드문 풍경이 됐다. (장진군 제공)

장흥 연극활성화 ‘신선한 시도’

郡, 주민·전문 극단 참여 작품 제작

장흥에서 지역주민과 전문 극단이 함께 연극작품을 무대에 올리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 2월 광주·전남에 연고를 두고 있는 전문극단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광주에 위치한 극단 ‘까치놀이’를 장흥 문화 예술회관 상주예술단체로 지정, 소설가 한승원의 희극 ‘아버지’를 제작 공연작품으로 선정해 현재 시나리오 작업 중에 있다. 또한 군민의 공연제작 참여를 위해 ‘장흥문화예술회관 연극 아카데미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 군민을 대상으로 한 서류 심사와 면접(오디션)을 통해 교육생 23명을 뽑아 지난 11일부터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갔다. 교육생은 오는 10월 말까지 80차례에 걸쳐 전문강사와 전문배우로 이루어진 강사진을 통해 연극의 이론과 기초, 연극실기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이 가운데 우수교육생 10여 명은

이번에 제작될 연극 ‘아버지’에 참여 할 뿐만 아니라 내년 전국 공연투어 에도 동참하게 된다. 군은 공연작품을 관내 1~2회의 시연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공연작품을 만들어 내년에 타 문화회관이나 공연장에서 공연할 계획이다.

이번 장흥군이 시도하는 군민과 전문극단이 함께하는 공연제작 사업은 군립이나 시립 예술극단이 아닌 일반인 참여이다. 또한 군민의 공연제작 참여를 위해 ‘장흥문화예술회관 연극 아카데미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군 단위에서는 거의 사례를 찾아 볼 수 없어 잠재돼 있는 지방의 공연예술의 발전과 주민의 문예복지 실현 차원에서 신선한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연극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공연배우를 양성하고 침체된 지역 문화예술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장흥 年 60t 생산 ‘육포 가공공장’ 가동

장흥에 연간 60t 생산규모의 육포 가공공장이 들어섰다.

16일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착공 이후 2년여간의 공사 끝에 육포 가공공장이 완공돼 시험가동에 들어 갔다. 육포 가공공장은 자동화 시스템을 갖춰 연간 60t의 육포를 생산, 연간 10억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된다.

군은 장흥 토요시장에서 유통되는 한우의 저지방육 등 비선호 부위의 판로 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경기도 육포 가공업체에 OEM방식으로 육포를 주문생산했다. 지난해 4월 광주지역 백화점에서 육포 시식회를 가진 결과 시중에 유통되는 기존 제품보다 맛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흥군 관계자는 “기존 육포시장에 새로운 명품 육포 제품의 출시를 알릴 수 있는 관측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화순군 ‘여권 야간 예약제’ 호평

화순군이 이달부터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여권 야간 예약제’를 실시,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야간 예약제는 전자여권제도 실시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방문·신청토록 여권발급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평일(월~금)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여권 야간에 예약 신청을 원하는 경

우 평일(월~금) 근무시간에 구두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방문일자 사전 예약한 후 신분증, 여권용 사진, 수수료(현금납부) 등을 준비해 예약한 날짜에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군은 사전예고 제도와 여권을 택배로 집까지 배달하는 택배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전남 축산연구소 강진 이전

전남도 축산시험장이 전남도 농업 기술원 축산연구소(소장 하창호)로 확대 개편해 최근 강진으로 이전했다.

강진 작전에 새롭게 마련된 축산연구소는 59만㎡의 부지에 한우 및 돼지 인공수정센터 7동, 한우사, 돈사, 계사 등 시험연구 축사 16동과 사료 포장 40만㎡를 갖추고 있다.

축산연구소는 기존 종축분양 위주의 업무에서 벗어나 재래가축 등 우

수 유전자원을 보존증식하고, 고소득 미래형 전남 축산실현을 위한 다양한 연구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연구소는 올해부터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부존자원을 이용한 사료개발 ▲친환경축산 모델 개발 ▲육용 염소 유전자 및 형질 특성 연구 ▲재래가축 우수 유전자원 개발 등 연구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연구소 하창호 소장은 “중축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중·단기적으로 연구과제를 분류하고 연구사업에 착수해 전남지역 축산농가의 경쟁력 확보와 소득증대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연구를 수행, 전남 축산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전주 콩나물국밥 전국이 반했네

‘현대옥’ 2년만에 체인점 47개 개설 ‘대박’



‘맛의 고장’ 전주의 대표적인 음식은 비빔밥과 콩나물 국밥이다. 그중에서도 콩나물 국밥은 남부시장 ‘현대옥’ 등 각 음식점마다 독특한 맛을 자랑한다.

전주의 명물 ‘현대옥’ 콩나물국밥이 빠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업 2년차에 전국적으로 47개 체인점을 개설했다.

‘현대옥’은 양육원씨가 지난 1979년 전주 남부시장의 좁은 골목길에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시작했으며 독특한 맛과 분위기로 손님의 입맛을 사로 잡았다.

특히 기존 음식점과 달리 즉석

에서 손님들의 취향과 입맛에 따라 10여 가지의 다양한 콩나물 국밥을 내놓아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손님이 찾아올 만큼 유명세를 탔다. 또 ‘새벽 6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인 영업시간을 넘기면 손자에게도 밥을 안 준다’는 영업방식과 할머니의 결속한 입담, 인정이 결집되면서 전주의 명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양할머니가 관절을 앓으면서 ‘현대옥’의 독특한 맛과 간판이 사라지는 것을 아쉽게 생각한 현대옥 프랜차이즈 오상현 대표가 브랜드를 인수하고 맛 비법을 전수받아 2009년 4월 프랜차이즈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오 대표는 친환경 식자재와 우리 농산물로 양 할머니 맛을 지키고 현대인의 입맛에 맞도록 맛을 표준화했다. 모두 한잔을 들이키며 전주의 맛과 멋을 동시에 맛 볼 수 있는 음식으로 승화시킨 셈이다. 나아가 국밥에 들어가는 쌀도 일반미에서 건강에 좋은 배아 현미와 보리 등 잡곡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이러한 결과 중화산동

본점의 경우 토·일요일에 3000여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

이 같은 전주의 후한 음식문화, 재료 질 향상, 맛 개발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확산된 비결로 꼽힌다.

특히 오 대표는 지난 2009년부터 전북대에 장학금 2400만원의 기탁해 화제가 됐다. 오 대표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기탁에 나선 것은 오랜 세월 전주의 고유의 맛을 이어오고 있는 음식 업계 대표로서 관련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던 평소 신념 때문이다. 전북대는 오사장의 기탁에 ‘현대옥 장학금’이란 이름을 붙이고 기탁자 뜻대로 식품공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2009년 이래 매년 3명의 학생을 선발, 7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오 대표는 “전주만이 갖고 있는 맛을 이어가길 인재양성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야겠다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현대옥 김용 본부장은 “좋은 재료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맛 개발과 함께 전북 인심을 뚝딱 담은 것이 장수 비결”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김용철기자 knews@

전주 ‘어진 박물관’ 1층 전문관 등록

지난해 11월 전주 한옥마을내 경기전에 문을 연 ‘어진 박물관’이 1층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됐다.

1층 전문박물관은 전시실 100㎡ 이상, 유물 100점 이상, 수장고, 화재와 도난 방지시설, 온도 및 습도 조절장

치를 갖춰야 등록할 수 있다.

어진 박물관은 이를 계기로 경기전의 제례를 체험해 보는 ‘경기전 분향례 체험’과 소강 유물을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 보는 ‘경기전 소장 유물 만들기’, 태조 어진을 전통적 어진 제작

기법으로 만들어보는 ‘도전 어진화사’ 등의 체험행사를 다음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또 경기전의 대표적인 유적지를 탐방하는 답사 프로그램과 경기전을 지키고 관리해온 참봉들의 일상을 체험하는 ‘경기전 참봉체험’도 진행하기로 했다.

/*전북취재본부=김용철기자 k0765@

전 북



부안 하우스 감자 첫 수확

부안군 계획면 양산리 주민들이 15일 비닐하우스에서 조생종 감자를 수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초에 심은 하우스 감자는 20kg 한 상자가격이 지난해보다 40%가량 높게 팔릴 전망이다.

/*연필뉴스

새만금산단에 ‘미래형 차 개발연구소’

2014년까지 2300억 투입

군산 새만금산단에 미래형 상용차 부품을 개발하는 연구소가 들어선다. 16일 군산시에 따르면 전북 자동차 기술원과 자동차부품연구원 공동으로 주관하는 ‘미래그린 상용차부품 개발연구소’ 건립사업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심사를 받고 있는데 그 결과가 오는 6월께 나올 예정이다.

이 연구소(부지 33만㎡)에는 차에 필요한 고효율·고기능 부품 등 4개 분야의 연구소와 상용차용 복합 주행성능 실증기반 구축시설이 들어선다. 실증기반 구축 시설은 25t 이상 대형 트럭의 성능을 시험하는 시설로, 국내에서는 군산에 처음으로 건설된다. 이 사업에는 국비 1590억원과 지방비 450억원, 민자 260억원 등 총 2300억원이 투입된다.

이 연구소가 건설되면 굴착기 등을 생산하는 두산 인프라 코어와 상용차 업체인 타타대우(이상 군산 소재) 등과 함께 공동연구 개발도 가능해져 세계적인 상용차 생산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단 신

정읍시, 구제역 여파 각종 행사 취소·연기

정읍시는 구제역 여파로 4월 1일 열릴 예정이던 벚꽃축제를 취소하고 북·소성·영원·덕천면 등 4면의 날 행사는 연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는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우회도로 차량을 통제해 상춘객들이 차 없는 거리에서 벚꽃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하

고, 정읍시 국악단 국악공연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펼칠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구제역 파동이 정읍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금까지 유지해온 청정 정읍을 지키기 위해 양해를 구해 취소·연기했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남원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선정

남원시 운봉읍·인월면·산내면 등 3개 읍·면을 경유해 흐르는 람천이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남원시는 오는 2016년까지 총 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해 람천(길이 19.8km)을 지리산 둘레길

및 국악과 연계한 명품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자동 수문보 설치와 자연형 습지조성을 통한 생태복원을 비롯해 ▲생태문화 탐방로 배치 ▲자연과 건강을 테마로 한 친수공간 조성도 포함된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김제경찰 ‘학교폭력 예방교실’ 호응

김제경찰서(서장 조용식)는 지난 16일 축산면 축산 초등학교 강당에서 학생 80여명과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범죄예방과 기초질서 교육을 실시해 호응을 얻었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교사와 학생들은 “이번 범죄예방 교실을

통해 단지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알았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제경찰은 초·중·고 학생을 상대로 다음달 말까지 ‘청소년 범죄예방 교실’을 열 방침이다.

/*전북취재본부=홍운성기자 hnews@

순창 장류 원료 농산물 계약재배 가격 결정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고 고추·콩·참쌀·겉보리 등 장류(醬類) 원료 농산물 계약재배 가격을 결정했다.

세척고추의 경우 전년 대비 600g당 200원을 올린 6500원, 콩은

kg당 500원을 올린 4000원으로 결정했으며, 참쌀은 40kg(가마)당 9만원, 겉보리는 40kg(가마)당 3만3000원으로 전년과 동결된 가격으로 결정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